

한국은 자유민주체제 승리의 표본

미의회지도자 초청 만찬 인사말씀

1985년 4월 26일

존경하는 미 의회지도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저녁 미국 상하원의 지도자 여러분과 이와 같이 자리를 함께 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낮 「레이건」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양구간의 공동관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었음을 본인은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인은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반도의 안보문제와 경제개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안정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물론, 미국의 이익 그리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세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GNP의 약 24% 이상을 무력증강에 투입하여 전투병력과 장비 면에서 압도적인 대남우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최근 그들은 외견상으로 「평화의 미소」를 꾸미는 한편으로 휴전선 부근에 후방에 있던 대규모 전투 병력을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으므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군사적 책동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침략을 꾸준히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국민총생산의 약 6%, 전체 예산의 34%를 방위비에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지속돼 나갈 것입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인정하다시피 우리는 과중한 부담과 전쟁의 폐허에서도 주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는 흔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이 각축하는 대결의 역사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인류에게 이롭이 아닌 현실로서 자유와 풍요의 삶을 향유하게 하느냐 하는 체제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 지원한 한국과, 소련 및 중공이 지원한 북한과의 경제발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원으로 이룩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승리에 높은 자부과 긍지를 가져 마땅하며, 그러한 성공을 지키고 확고하게 결실을 거두도록 해야 할 책무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한국이 성공사례를 완성하고 이 지역의 방위노력을 계속하는 길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

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도상에 있습니다. 우리의 1인당 GNP 규모는 같은 아시아에 있는 일본의 5분의 1, 대만의 3분의 2에 불과하며 미국의 7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많은 외국자본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보다 약간 작은 국토에 빈약한 자원을 가지고 4천만의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는 생존과 발전을 위해 대외교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방된 국제경제질서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그러한 개방질서의 확립에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레이건」대통령이 주창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확고히 지지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무역과 관련하여 국내시장을 닫고 오직 수출에만 전념하는 나라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외채와 과중한 방위비 부담 속에서도 성장에 필요한 수입을 위해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전형적인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부존자원의 부족에 따라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사정은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가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고한 계획에 따라 국내시장을 끊임없이 개방해 왔으며, 한국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수출이 가장 성공적으로 늘어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입각한 무역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호혜적인 시장개방과 공정한 무역, 그리고 무역분야의 국제협력에서 태평양지역의 수범이 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자유기업체제와 개방경제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다른 개도국들의 정책방향에도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이 지금까지 이룩해 온 값진 협력관계를 이해와 신뢰와 상호존중의 바탕에서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국은 역사와 전통이 다르고 문화와 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각기 처한 현실이 크게 다릅니다. 그러나 목표와 이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와 정의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증진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정치와 토착화와 경제 및 군사면의 자립을 이룩하는 결정적인 고비는 앞으로 3,4년간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안보와 경제의 자립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대한 승리의 기록을 반드시 창조해 내고 말 것임을 본인은 확신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들의 변함없는 우정과 한미간의 내일을 향한 협력의 강화를 위하여 다같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